

<표지>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과제

- ◆ 일시 : 2008년 4월 25일(금) 14:00~17:30
-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
- ◆ 주최 : 국제자유도시포럼·제주발전연구원
-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빈 페이지)

(속지)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과제

- ◆ 일시 : 2008년 4월 25일(금) 14:00~17:30
-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
- ◆ 주최 : 국제자유도시포럼·제주발전연구원
-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로고



(빈 페이지)

## <프로그램>

13:30~14:00	등 록
14:00~14:20	개회사/좌승희(국제자유도시포럼 의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축 사/이상복(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14:20~14:40	기조강연/김경택(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제주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
14:40~15:50	<p><b>&lt;제1부&gt;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과제</b></p> <p style="padding-left: 40px;">좌 장 : 김세원(국제평화재단 이사장)</p> <p>제1주제 :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평가 및 향후 과제 김태보(제주대 경제학과 교수)</p> <p>제2주제 : 제주지역 회의산업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허향진(제주발전연구원장)</p>
15:50~16:00	휴 식(Coffee Break)
16:00~17:30	<p><b>&lt;제2부&gt; 종합토론</b></p> <p style="padding-left: 40px;">좌 장 : 좌승희(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p> <p>토론자 : 강철준(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수종(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 김창희(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희현(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상임부회장) 신부용(교통안전연구원 원장) 오경수(롯데정보통신 대표이사) 오영훈(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허정옥(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lt;가나다 순&gt;</p>

## <기조강연>

# 제주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

- '자치'와 '자유도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 경 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 < 목 차 >

I. 서언

II. 중세 유럽사에서 자유도시 - '자치'를 통한 '자유도시'

III. 현대의 국제자유도시 - '자치'를 통한 '자유도시'

IV. 자치와 국제자유도시

# 제주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

- '자치'와 '자유도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경택(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 1. 서 언

자유도시라는 개념은 사람과 상품 그리고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자유로움은 기업 활동에 대한 자유로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 활동이 자유롭다는 것은 기업이 사업을 전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업하는데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규제가 적어 기업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람을 고용하고 상품을 팔고 자본을 들여올 수 있습니다.

물자가 회전하고 사람이 움직이므로 뛰어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매력은 바로 이러한 자유도시가 가진 경제적 효율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하는 이유는 이러한 경제적 효율성을 기반으로 동북아에 대한 거점을 확보하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제 첫걸음을 디딘 제주국제자유도시와 두바이, 홍콩, 싱가포르 등의 선진 국제자유도시와의 위상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가능성을 갖춘 도시입니다. 인구 500만이 넘는 수십 개의 도시가 비행기로 2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가능한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업지를 갖추고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개발전담기구가 설립되고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자치 체제가 만들어짐으로써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비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다양한 투자 주체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가진 이러한 강점이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도 전지역의 면세화, 역외금융센터와 제 2 공항 같은

문제 그리고 제주도민의 국제화 같은 사항들이 바로 그러한 선결조건입니다. 도 전지역의 면세화는 관광지로서의 제주도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 철폐가 적극적으로 수행되면 투자유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외금융센터는 현재 관광에 편중된 국제자유도시의 기초 전략을 혁신적인 형태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국제화된 제주도민은 우수한 노동공급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제주도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선결조건들은 '자치'라는 행정 체제와 깊은 연관을 가집니다. 오늘 '자치'와 '자유도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2. 중세 유럽사에서 자유도시 - '자치'를 통한 '자유도시'

자유도시라는 개념은 과거 13~14세기 경 독일에서 처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분권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독일의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했던 영국과 달리 이들 자치도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도시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 자유도시들은 도시의 자치권 측면에서 논의되었던 개념입니다. 이 때 자유도시에 쓰인 '자유'는 '자치'의 개념과 유사했습니다. 독일의 왕들은 로마제국의 전통을 이어 서구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 했고 따라서 교황과의 싸움에 몰두하는 등 이탈리아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했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과제들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호족의 권력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후반에 들어 황제의 영향력은 축소되어 도시동맹들은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독일은 분권화되었고 중앙집권적 국가 형성은 느려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일의 많은 도시들은 독립국가에 가까운 자치와 공적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역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치'라는 개념으로서의 '자유'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현대적인 국제자유도시의 '자유'라는 개념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역사적 사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도시의 예가 함부르크입니다. 함부르크는 1241년에 뤼베크와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독일 한자동맹의 중심에 있었으며 여러 유럽 제국들과의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현재 함부르크는 중세 자치도시로서의 역사의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공공생활을 비롯한 개인의 생활이 보여주는 상당



한 수준의 다양성입니다. 뉴욕 다음으로 많은 영사관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점입니다. 현재 함부르크의 항구는 유럽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물동량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증권거래소가 있는 곳도 바로 함부르크입니다. 함부르크의 은행은 30년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자 동맹이 형성되어 활발히 활동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함부르크에서는 무역과 경제 그리고 정치와 외교, 문화가 현대적 의미에서의 국제자유도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활기차고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 3. 현대의 국제자유도시 - '자치'를 통한 '자유도시'

현대적인 의미의 국제자유도시를 논의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두바이입니다.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의 7개 토후국 중 하나로 때로는 그 중심도시를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메뚜기'라는 재미있는 뜻을 가진 두바이는 2011년까지 석유 의존도를 0%까지 줄이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중계무역을 위한 자유무역지대 그리고 지식경제 대응을 위한 정보산업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무세금, 무제한 외환거래, 무스폰서 그리고 무노동쟁의라는 4無 그리고 다양한 물류여건, 다양하고 편리한 지원시스템을 의미하는 2多의 자발알리 자유무역지대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번 수익 전부를 본국에 송금을 허락하며 동시에 외국인의 100% 기업 소유를 인정하는 전향적인 정책은 두바이를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전향적인 정책의 실시는 자치권이 보장되는 토후국이라는 정치적 행정적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971년 독립을 성취하면서 아랍에미리트연합은 연방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토후국들은 실질적으로 자치를 영위하고 있었으며 연방국가로서의 통합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연방제적 국가체제와 각 토후국들의 자치는 아랍에미리트의 행정 체계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두바이의 성공요인은 셰이크 무하마드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자치체제가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요한 역사적 배경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편전쟁 이후 난징조약을 통해 영국에 할양된 홍콩을 다시 중국이 회복하였음에도 그 곳은 특수한 정치적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1국 2체제라고 불리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1국가 내 공존이며 이러한 상황이 가능했던 것은 그러한 체제가 가져오는 경제적 이점 때문입니다.

강력한 사회주의의 전통을 가진 중앙정부가 그러한 경제적 이점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면 홍콩이 회복되자마자 자치권을 회수하고 그곳의 경제체제를 다른 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홍콩이 가진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홍콩이 가진 특수한 환경, 독특한 정치제도 그리고 유럽과 유사한 교육 시스템을 보장해주어야 했습니다. 중국의 번영이 중앙정부의 최종적 목표라면 다른 정치 체제와 자치를 보장해주는 것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자치와 국제자유도시

앞서 중세 독일의 함부르크, 두바이 그리고 홍콩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치'는 '자유도시'를 만드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도시 기능, 역내 경제권의 거점들을 연결하는 국제거점 도시기능 그리고 경제활동의 자유와 양호한 기업환경을 보장하는 규제자유도시 기능은 바로 국제자유도시를 설명하는 중요한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자치권을 제외하고는 논의될 수 없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형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줄 다양한 정책과 시도들은 광범위한 규제의 철폐와 자치적 기능의 발현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교육과 의료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책적 흐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해야 합니다.

규제의 완화는 외자 유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요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의 철폐는 중앙정부가 지속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제주 지역 말고도 여러 지방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국가적 의미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가진 특수한 환경을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고려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제주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이상적 모습에 근접한 제주도는 서

로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모멘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여러 국제자유도시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아닌 지방정부의 자율이, 집중화된 계획의 한 부분이 아닌 통합적 체계로서의 플랜이, 산발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두바이와 홍콩을 예로 들 것도 없이 '자치'라는 특수한 행정 체계가 미치는 영향력은 광범위합니다. 정치와 행정은 쉽게 경제와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국제자유도시라는 목표와 이상을 향해 통합될 때 경제적 의미에서의 국제자유도시도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가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되고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좌승희 국제자유도시포럼 의장님과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1주제>

#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평가 및 향후과제

-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김 태 보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 < 목 차 >

- I. 문제제기
- II.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의 추진현황
- III.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의 평가
- IV.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후 과제
- V. 맺음말

#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평가 및 향후과제

-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김태보(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 I. 문제 제기

-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입은 제주도에 대해 차별화된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서 기업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제주지역 발전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같은 제도적 수단이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수단이 아님. 1966년 제주도가 특정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국가발전전략의 관심 지역이 되었음. 이에 기초하여 1970년대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였음. 그 후 1980년대에 와서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였는데,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를 수립·추진함으로써 관광지의 여건을 강화하여 관광산업을 제주지역경제의 기반산업으로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1990년대에 와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하여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주체가 되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기초하여 추진한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었음.
- 2000년대에 들어와 제주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략으로 도입·추진되고 있는 것이 개방거점전략임. 이 개방거점전략은 국내 지향적인 지역발전전략에서 탈피하여 국제무역, 자본, 기술의 유치를 통해 경제발전과 경제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전략임. 여기서 개방거점이란 국내의 여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일단의 정책수단을 통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수출입, 투자 등 특정한 종류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제한된 범위의 지리적 공간으로 정의됨. 이 개방거점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은 2002년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특별법에 기초하고 있음.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은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음.

- 이어서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더불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제주도에 대해 차별화된 법적 지위와 권한에 바탕을 두고 홍콩과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제주지역발전전략이 개막되었음. 이는 장기적으로 제주도내에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서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개방된 자유시장모델의 구축을 통해 실현한다는 것임.
- 따라서 이 글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을 중심으로 계획목표의 달성 가능성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후과제를 제시하는데 있음.

## II.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의 추진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한 제주 국제자유도시계획은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음.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프로젝트로서 7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는데,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총 2조 95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기로 하였음. 그 개발사업의 내용을 보면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쇼핑아울렛 개발 등외에 2006년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등이 재조정되었음.
- 7대 선도프로젝트는 2007년까지 총 2조 30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투자액은 2,219억원에 불과하여 계획 대비 9.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이를 투자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 950억원의 투자가 계획되었으나 계획 대비 11.5%인 110억원 만이 조달되어 집행되었고, 지방비는 계획된 사업비 370억원이 계획되었으나 조달된 투자재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제주 국제자유개발센터(JDC)의 경우는 계획된 투자사업비 3,461억원 중 60.9%인 2,109억원을 조달하였음. 그러나 민자의 투자실적은 전무한 실정으로 나타나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사태를 낳고 있음.

[표 1]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별 계획 대비 투자실적

구 분	총사업비	계획 대비 집행실적										투자 계획	투자액	투자 실적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b>계</b>	29,543	22	22	646	336	2,284	563.4	6,609	558.5	13,535	739.3	23,096	2,219.2	9.6
- 국 고	1,559	-	-	20	20	90	30	310	30	530	30	950	110	11.5
- 지방비	436	-	-	-	-	40	-	100	-	230	-	370	-	-
- 개발센터	3,462	22	22	626	316	1,201	533	1,022	528.5	591	709.3	3,461	2,109.2	60.9
- 민 자	24,086	-	-	-	-	953	-	5,177	-	12,184	-	18,314	-	-
<b>첨단과학기술단지</b>	4,001	9	9	20	51	243	253	654	92	973	300	2,079	705	33.9
- 국 고	560	-	-	20	9	40	30	130	30	130	30	320	99	30.9
- 지방비	140	-	-	-	-	40	-	50	-	50	-	140	-	-
- 개발센터	689	9	9	180	42	163	223	237	62	100	270	689	606	87.9
- 민 자	2,612	-	-	-	-	-	-	237	-	693	-	930	-	-
<b>휴양형주거단지</b>	4,366	8	8	222	241	1,277	73	1,229	295	878	119	3,614	736	20.3
- 국 고	-	-	-	-	-	-	-	-	-	-	-	-	-	-
- 지방비	56	-	-	-	-	-	-	-	-	56	-	-	-	-
- 개발센터	724	8	8	222	241	324	73	170	295	-	119	724	736	101.6
- 민 자	3,586	-	-	-	-	953	-	1,059	-	822	-	3,558	-	-
<b>신화·역사공원</b>	19,195	1	1	211	44	551	237	4,231	171	10,720	290	15,714	743	4.7
- 국 고	719	-	-	-	11	-	-	100	-	250	-	350	11	3.1
- 지방비	157	-	-	-	-	-	-	30	-	61	-	91	732	804.9
- 개발센터	1,749	1	1	211	33	551	237	500	171	486	290	1,749	-	-
- 민 자	16,570	-	-	-	-	-	-	3,601	-	9,923	-	13,524	-	-
<b>서귀포 관광미항</b>	1,250	3	3	5	-	156	0.1	416	0.2	670	30	1,250	33.3	2.6
- 국 고	280	-	-	-	-	50	-	80	-	150	-	280	-	-
- 지방비	70	-	-	-	-	-	-	20	-	50	-	170	-	-
- 개발센터	150	3	3	5	-	106	0.1	36	0.2	-	30	150	33.3	2.2
- 민 자	750	-	-	-	-	-	-	280	-	470	-	1,020	-	-
<b>쇼피아올렛</b>	731	1	1	8	-	57	0.3	79	0.3	294	0.3	439	1.9	0.4
- 국 고	-	-	-	-	-	-	-	-	-	-	-	-	-	-
- 지방비	13	-	-	-	-	-	-	-	-	13	-	13	-	-
- 개발센터	150	1	1	8	-	57	0.3	79	0.3	5	0.3	150	1.9	1.2
- 민 자	568	-	-	-	-	-	-	-	-	276	-	276	-	-

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7

-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경우 제주도에 생명공학 등 교육·연구·창업 지원기능이 결합된 휴양형 과학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식산업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 투자실태를 살펴보면, 2007년까지 계획된 투자액은 2,079억원이나 집행된 투자액은 33.9%에 불과한 705억원에 그치고 있음. 투자재원별로 보면 국고 투자계획 320억원 중 30.9%인 99억원만이 조달되었고, JDC가 투자계획 689억원 중 87.9%인 606억원이 투자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비와 민자는 각각 투자계획 140억원, 930억원이었으나 조달된 투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은 새로운 휴양주거문화 형성을 통해 인구유입효과 및 관광객 체류기간 연장 도모 등 제주도를 고부가가치형 지역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 투자실태를 살펴보면, 2007년까지 계획된 투자액은 3614억원이나 집행된 투자액은 20.3%인 73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투자재원별로 보면 JDC 투자계획 724억원 중 101.9%인 736억원이 조달되었으나 지방비와 민자는 전무한 상태임.
-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은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 신화, 역사 등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신화·역사 관련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인을 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 투자실태를 살펴보면, 2007년까지 계획된 투자액은 1조 5714억원이나 집행된 투자액은 4.7%인 74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투자재원별로 보면 JDC 투자계획 724억원 중 101.9%인 736억원이 조달되었고, 지방비와 민자는 전무한 상태임. 투자재원별로 보면 국고 350억원이 투자 계획되었으나 계획 대비 3.1%인 11억원만이 조달되어 집행되었고, 지방비는 계획된 사업비 391억원이 계획되었으나 조달된 투자재원은 804.9%인 732억원이 조달되었음. 개발센터(JDC)와 민자의 투자실적은 전무한 실정으로 나타남
-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은 관광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서귀포항을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관광미항으로 개발함으로써 제주도내 해양관광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 투자실태를 살펴보면, 2007년까지 계획된 투자액은 1250억원이나 집행된 투자액은 2.6%인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투자재원별로 보면 JDC 투자계획 150억원 중 2.2%인 33억원이 조달되었고, 국고·지방비와 민자는 전무한 상태임.
- 쇼핑아울렛 개발사업은 중국, 일본 등 해외관광객의 욕구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명품형 쇼핑시설을 개발하여 제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으로 투자실태를 살펴보면, 2007년까지 계획된 투자액은 439억원이나 집행된 투자액은 1.2%인 1억 9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투자재원별로 보면 JDC 투자계획 150억원 중 1.2%인 1.9억원이 조달되었고, 국고·지방비와 민자는 전무한 상태임.

- 이외에 7대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공항자유무역지대는 중단된 상태임. 또한, 기타 관광지 개발사업의 경우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표에 의하면 민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관광지개발사업을 착공하거나 투자된 개발사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태에 있음.

### III.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의 평가

#### 1. 계획수립 측면

- 제주 국제자유도시계획은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음.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공항, 항만,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임.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은 물리적 계획(physical planning)인 동시에 경제적 계획(economic planning)을 포괄하는 종합 계획이며, 또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법적계획이라는 점에서 국가계획과 하위 지역계획을 구속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 물리적 계획은 당해 지역의 교통, 통신, 토지이용 등 물리적 구조와 시설에 대한 계획을 의미하며 경제적 계획은 당해지역의 경제적 구조와 경제개발을 위한 계획임.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을 구상·수립하는 과정에서 제2공항의 신설, 크르즈 항만의 조성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제2공항의 건설문제, 해군기지유치과정에서 나타난 갈등문제 등이 발생.

□ 제2공항 및 크르즈항만 조성과 관련된 문제

- 제주도가 동북아의 중심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주요 거점 도시들과 관광지와 연계망 구축도 긴급요. 교통망의 정비·확충을 위해서는 제2공항의 건설과 제주·화순항의 환태평양 전진기지화와 크르즈 및 컨테이너 수출입항으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동북아의 교통의 허브적 기능을 통해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규모의 신공항 건설이 급선무다. 더구나 공항과 항만은 기업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물적 인프라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특히, 인천·부산 등의 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의 물류·비즈니스·교통의 허브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영종도국제공항을 확충하고, 부산신공항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항 확충이 긴급한데도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에 소홀하게 취급됨으로써 오늘의 문제를 낳고 있음.

□ 국제자유도시 기능과 관련된 문제

-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을 구상,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제자유도시 기능과 관련한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방향에 대한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계획집행 측면

-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케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07년까지 6년이 지나고 있으나 개발사업 집행의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사업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특히 개발사업이 추진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2조 30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였으나 투자액은 2,219억원에 불과하여 계획 대비 9.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개발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하였는데 그 원인은 다음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실행계획이 없다?

- 2011년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을 토대로 7대 선도프로젝트를 실행,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실행계획이 결여된 것이 개발사업 추진의 부진을 낳게 함.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7대 선도프로젝트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견인하기 위한 핵심적 사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개발사업인데 2011년까지 효율적으로 추진, 완성되기 위해 장·중·단기의 추진계획과 일정을 담은 실행계획이 결여되었거나, 아니면 단계별 추진계획 곧, 단기 쇼핑아울렛, 중기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장기에 신화·역사공원, 서귀포 관광미항 등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에 기인하고 있음.

□ 중앙정부 권한 미이양에 따른 개발사업의 추진 부진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1·2단계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1,336건의 권한과 사무를 이양받았으나 대부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인사분야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제주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개발단지 및 개발지구사업을 추진 가능케 하는 권한과 사무분야는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 미흡

- 계획에서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분석·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들 수 있음. 제주지역발전과 관련하여 많은 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계획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활동은 거의 없었음. 그동안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원인 가운데 적지않게 계획과 집행의 불일치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음. 집행이 제대로 이뤄져야 그 계획은 생명을 얻게 되는데,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였음. 계획 따로 집행 따로 하는 개발방식이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에 한계를 낳았음. 7대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도 공항자유무역지역과 서귀포미항 개발계획 등이 관련 법규의 검토 미비로 그동안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은 바 있음. 아울러 계획에서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분석·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음.

#### □ 개발사업과 관련한 갈등 문제

- 개발사업과 관련한 갈등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음. 잦은 개발 갈등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음. 대표적인 개발 갈등의 사례로서 쇼핑아울렛 개발사업 외에 송악산관광지구개발사업, 세화·송당지구개발사업,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 등 이외에도 많은 중소 개발사업이 첨예한 갈등을 자아내면서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개발사업이 취소되어 개발계획이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나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3. 투자자원 조달상의 문제

#### □ 국가재원 조달의 미흡

- 7대 선도프로젝트 중심의 개발사업의 경우 국고재원조달이 2007년까지 계획된 사업비 950억원 중 11.5%인 110억원만 조달된 것으로 나타나 국고재원 조달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긴요한데,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왔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제주도의 경제정책이 국제경제 환경변화 및 국가경제정책기조의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여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됨.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경제를 위한 경제활성화정책이 종래 top-down approach에서 bottom-up approach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적절하게 대응하여 정책 추진을 강구하지 못하였던 것이 문제이었음. 서귀포시의 기업도시 유치의 실패,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노력에 있어 한계를 드러냈던 것이 그 실례라 할 수 있음.

#### ○ 민간자본 조달의 한계

- 민자유치 부진이 문제다. 투자 유치의 효율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개발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법인세·재산세의 감면 등을 비롯하여 각종 투자 유인 체제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가 여전히 부진한 것

으로 나타났음. 민자유치는 2002~2007년 기간 중 민자의 투자실적은 전무한 실정으로 나타나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사태를 낳고 있음. 이외에 관광지 개발사업의 경우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표에 의하면 민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관광산업분야의 투자유치가 55개 개발사업 총 12조 5587억원을 유치하여 국제자유도시계획의 민간투자계획의 97%를 달성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 공사착수한 개발사업은 8개 사업의 2조 3376억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들 사업도 사업초기 단계에 있어 투자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태에 있음.

-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거하여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인체제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특히, 선진국의 투자선호나 경쟁국의 투자환경에 비추어 볼 때 비교우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산업용지의 수급불균형, 금융부문의 낙후성, SOC투자의 부진, 임금의 급상승과 노사불안정 등과 복잡다기한 법적, 행정적 규제 등은 경쟁국의 투자환경에 비추어 볼 때 불리한 편임. 관광단지의 개발은 개발용지를 대규모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개발의 성패는 토지확보의 용의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토지취득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투자유인체제가 미흡한 상태임.

#### 4. 추진성과 측면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의 추진성과와 관련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궁극적 목적이 제주도를 국가 개방거점으로 발전시켜 제주도민의 소득,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상의 개발사업 추진이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의 추진이 지역경제성장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였음.

#### □ 경제성장의 측면

- 실물경제에의 기여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계획기간 중 제주지역경제성장률

이 크게 떨어져 성장동력기반이 무너지고 있음. 2000년대 이후 제주경제의 장기 침체 현상은 경기순환상의 일시적 불황이라기보다는 장기지속형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복합불황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데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의 추진이 장기경제침체를 극복하는데 별로 기여하고 있지 않음

[표 2] 2006년 GRDP 성과목표 및 실제치 비교(단위 : 10억원)

	GRDP	증가율
'06년 성과목표	8485	10%
'06년 실제치	7596	6.3%
차이	-889	-3.7%

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도, 2002

-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계획기간 중 제주경제는 급속한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글로벌경쟁시대를 맞으면서, 지금까지 제주경제를 끌어왔던 성장 원천인 농업이 전면적인 시장개방에 의해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성장정체를 가져왔는데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의 추진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별로 기여하고 있지 않음

[표 3] 산업구조별 GRDP 성과목표 및 실제치 비교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기타서비스	합계
'06년 성과목표	1,997	359	6,122	8,482
'06년 실제치	962	211	6,423	7,596
차이	-1,035	-148	301	-889

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도, 2002

#### □ 관광산업의 측면

- 개방거점전략에 의한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산업경쟁력 및 기술·첨단기법의 도입효과를 가져 오는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지역경제측면에서 고용소득창출 효과를 가져와 경제성장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해외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기법을 들여옴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는데 기여하여 지역경제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

자유도시계획의 추진이 부진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2006년 성과 목표 및 실제치 비교

	관광객수(명)	관광수입	정주민구(명)
'06년 성과 목표	7,284,000	2조6,214억원	584,000
'06년 실제치	5,312,998	1조8,468억원	561,695
차이	-1,971,002	-9,012억원	-22,305

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도, 2002

## 5. 기 타

### □ 위기 의식의 결여

- 제주도는 관광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자치단체와 도민 등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음. 국내외 관광객에 의해 국내 최고의 경쟁력 있는 관광지가 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제주체는 크게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음. 인천, 부산, 광양, 새만금 등 경제자유구역 등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위협이 되고 있어 최근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에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는데 비교우위에 언제나 선점효과를 유지할 것으로 도내 경제주체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제주도보다 늦게 출발한 인천자유구역은 미국 게일사로부터 125억\$을 유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펜실베니아 의대병원, 송도 아쿠아리아움, UN산하기구인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기술개발센터(APCICT) 등을 유치하여 동북아 물류, 금융, 관광의 중심지로 나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새만금지역이 경제자유지역으로 급부상하면서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음.

#### □ 정책수단의 실기

-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격절하운동과 FTA에 대응하는 산업구조조정정책 모색을 위한 연구용사업의 추진은 대표적인 정책수단의 적시성을 놓친 정책 실기를 가져온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음. 이미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주경제내 성장기반산업으로서 급속한 경제환경변화에 의해 관광산업과 농업의 경쟁력 약화가 나타나 구조조정이 긴요하였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오늘의 경제위기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제주농업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환경에서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제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농업구조조정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음에도 유통조절명령제라는 단편적인 시책에 매달려 옴으로써 농업의 위기를 낳고 있음.

### IV.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후 과제

#### 1. 성장 동력의 확충과 지속적인 산업구조 조정

-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우선과제가 제주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선진화에 있다고 볼 때 제주경제의 성장동력의 확충이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2000년대 들어와 제주경제는 급속한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글로벌경쟁시대를 맞으면서, 지금까지 제주경제를 끌어왔던 성장 동인인 자원, 기후 등의 공급측 요인과 지역 수출 등의 수요측 요인들이 더 이상 제주경제성장을 이끄는 성장 동인이 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던져주고 있음. 그 결과 그동안 제주경제의 성장원천이 되어 왔던 관광산업과 농업이 그 기능을 상실하였음. 이것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제주지역경제의 장기침체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경기순환상의 일시적 불황이라기보다는 장기지속형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복합불황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음. 따라서 제주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존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이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가 되고 있음.



- 선도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의 집중육성, 관광관련 선도프로젝트의 집중개발, 복합관광단지의 집중개발, 친시장적 관광산업의 구조개혁
-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및 지속적인 구조조정
- 유망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 경제·개발관련 중·단기의 실행계획의 강력한 추진

## 2. 민자 유치의 활성화

-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나아가 산업의 첨단화·고도화를 위한 과학기술단지, 자유무역지대, 관광휴양단지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활성화되어야 함.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외국기업들을 유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치 경쟁국보다 나은 세제 혜택과 양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그리고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여건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우리나라가 현재 도입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유형 가운데 정책적 측면에서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 등과 비교하여서도 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반을 둔 국제자유도시계획은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외국인투자가에게 가장 선호할 수 있는 투자환경인가? 이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경쟁지보다 우월한 투자환경 창출과 투자유치노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함.
- 조세 감면, 임대료 감면, 국·공유지의 활용, 규제 완화, 기반시설 제공 등의 투자인센티브의 지속적인 개선
- 투자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의 구축
- 투자재원의 다양화
- 투자전략의 다양화
- one-stop service 체제의 구축

### 3. 공항·항만의 확충과 동북아관광권의 중심거점화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북아의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항·항만의 확충과 더불어 동북아관광권의 중심지(hub)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북아관광권의 거점화전략이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북아지역의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인프라가 공항·항만인데, 이 점에서 제2의 국제공항의 건설과 크르즈항만 건설이 긴요한 과제임. 이와 관련하여 화순항을 중심으로 대규모 컨테이너항과 크르즈기능을 통합한 항만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 21세기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권 형성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동북아관광권의 거점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 제2공항의 건설 및 크르즈·컨테이너항의 건설
- 동북아 주요 도시 및 관광지와 연계망 구축

### 4. 개발갈등의 조정과 관리능력의 제고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에 있어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개발갈등의 조정이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개발갈등이란 개발과정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이 목표가 양립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긴장, 대립, 충돌 등을 의미함. 대표적인 개발갈등의 사례로서 송악산관광지구개발사업, 세화·송당지구개발사업,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 외에 최근에 와서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과 관련된 쇼핑아울렛 등 이외에도 많은 중소 개발사업이 참여한 갈등을 자아내 결국 당초 일정대로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개발사업이 취소되어 개발계획이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였음.
- 개발갈등의 원인을 크게 유형화해보면 첫째 하나는 개발과 관련한 환경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인데, 둘째는 개발로 인해 부를 축적케 하거나 이익을 발생케 하는 경우 편익의 수혜자와 희생자간의 갈등현상임. 이와 같은 개발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

시의 성공적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개발갈등을 효율적으로 대처한 사례로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들 수 있음.

- 자치단체의 개발전략 및 정책주도 역량 확충 강화가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화로 나아가기 위해 국제화·개방화 과정에서 경영마인드를 갖고 독자적인 지역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경제행정기능 및 조직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한예로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에 있어서 국고지원 재원조달에 한계를 드러낸 경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지역정책과 관련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국제자유도시의 비전·발전방향과 전략, 기술개발, 자원관리, 기업유치, 산업진흥, 환경보전, 문화발전 등의 정책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함.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획 및 재정관련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함. 또한 지역경제 및 산업행정 분야의 전문인력이 보강되어야 함.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통상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산업행정 분야의 인력의 경우 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전략 및 정책주도 역량 확충

○ 개발관련 분쟁 조정을 위한 사회통합체제의 구축

○ 개발관련 연구 및 계획역량의 강화

## 5. 글로벌 스탠더드의 구축과 도민인식의 전환

-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의 정착과 도민인식의 전환이 요구됨. 우리나라의 외국기업 유치여건은 미비하여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저가, 임금, 금리 등 생산요소의 고비용 구조와 자금조달상의 애로, 고율의 세금,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복잡한 행정규제, 기업윤리의 부족 등에 그 원인이 있음. 이외에 일반 도민이나 공무원들의 외국기업에 대한 태도가 별로 호의적이지 않음에 따라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큰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음. 따라서 항만, 공항, 도로 등 교통시설을 정비해 기업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 외에 각종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보완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 여건을 마련해야 함.

- 아무리 법 제도적인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외국기업에 홍보를 강화한다 해도 궁극적으로 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의 마인드 혁신에서 비롯되어야 함. 특히 지역경제발전전략으로서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대해 도민들이 보다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과제가 되고 있음. 제주도내 도민의식과 관련해서는 과거 역사적 경험과 최근 제주개발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개발에 대한 의식이 대체로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이 없지 않음.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는 경우 제주도내 산업의 시장개방은 불가피한 것이며, 개발에 필요한 자본 동원 역시 획일적 기준과 선택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음. 오히려 제주도내 자본과 외지자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발의 과실이 어디에 떨어지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지역자본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외지자본에 의한 개발에 대해 제주도민의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 상존할 때 제주지역의 경쟁력 강화는 요원한 길이 될 것임.

○국제자유도시개발 및 관광수용태세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개발관련 도민의식의 전환 및 대 도민 마케팅의 강화

## V. 맺음말

- 2000년대 개방거점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은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전략인데, 이 개방거점전략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고용·소득창출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지역경제내 산업구조조정과 기술향상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음.
-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기초한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의 추진 실태를 검토해보면, 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상의 한계, 민자유치 부진·국고지원 미흡, 개발갈등과 계획관리의 미숙에 의한 사업추진의 부진, 국내외 경제자

유지역으로부터의 경쟁위협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더불어 제주도의 동북아 중심거점으로 발돋움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발전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 육성하여 산업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산업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 제주경제내 기존 주력산업인 관광산업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과 생물산업, 환경산업, 물류산업, 회의산업, 국제금융산업, 문화산업 등 유망 신산업을 개발, 육성토록 함. 둘째,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는 것 외에 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 갈등관리의 조정, 인력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관리기능 강화 등이 긴급요. 또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도민의 합의와 공감대 형성 등 추진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끝으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원인은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이나 자원이 부족하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시도하려는 개발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Hirschman은 지적하고 있음. 경제발전을 위한 잠재력은 내용이 다를지언정 어느 지역이나 가지고 있으며, 다만 이것을 발전추진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개발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것임.

## <제2주제>

# 제주지역 회의산업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허 향 진

(제주발전연구원장)

### < 목 차 >

I. 서 론

II. 국내·외 컨벤션산업 현황 분석

III. 제주지역 컨벤션산업 현황 분석

IV. 제주지역 컨벤션산업 과제와 활성화 방안

V. 결 론

# 제주지역 회의산업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허향진(제주발전연구원장)

## I. 서론

- 컨벤션산업이 발달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은 친환경적이고, 관광 관련 산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컨벤션산업의 막대한 지역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국제회의 및 전시회의 유치에 국가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컨벤션산업의 역사가 짧아 국제적으로 이미지가 미약하여 국제적인 컨벤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각 지방마다 컨벤션센터를 개관하면서 과도한 시설로 인해 운영능력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유치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컨벤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회의 도시의 지정, 첨단 관련시설의 확충, 컨벤션 마케팅 전담기구인 CVB 조직 및 기능 강화 등 물적·인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음.
- 지방화시대가 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새로운 컨벤션센터 시설이 2008년 대전과 2009년 인천에도 개관 예정이며, 벅스코 및 엑스코가 센터 증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어 새로운 경쟁 시대를 예고하고 있음.
-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된 브랜드 상승과 더불어 회의 개최시 인센티브 지원, 홍보 강화 등으로 인해 2007년에도 총 107건(ASTA총회, 아시아광고대회, UCLG총회 등)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음. 그러나 리조트형 컨벤션지역으로 브랜드화 하고 전문인력 육성, 지역의 관련업체 영세성 탈피 등의 과제가 남아 있음.
- 한편 1996년 8월 제주도 차원에서 컨벤션센터 건립 필요성이 제시된 후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97년 8월부터 건립을 시작하여 2002년 12월 완공 후 2003년 3월 2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개관했음.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식 보유가 총주식의 57.02%로 변경됨에 따라 주식 비중을 50%미만으로 조정하지 않는 한 지방공기업법상 공기업 요건

에 해당하여 컨벤션센터를 공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함.

- 본 연구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컨벤션산업과 핵심 컨벤션시설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과제와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II. 국내·외 컨벤션산업 현황 분석

### 1. 국외지역

#### 가. 국제회의 개최현황

- 2006년 기준 아시아지역 주요도시별 국제회의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싱가포르가 298건(22.0%)으로 1위, 서울이 89건(6.6%), 그리고 베이징이 80건(5.9%)으로 3위를 차지함.
- 부산은 37건으로 8위, 제주는 33건의 국제회의 개최로 9위를 차지함.

<표 II-1> 아시아지역 주요도시 국제회의 개최 현황(2002~2006)

순위	국가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건수	구성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1	싱가포르	298	22.0	184	159	125	142
2	서울	89	6.6	104	113	58	84
3	베이징	80	5.9	88	100	44	60
4	도쿄	58	4.3	69	53	57	52
5	방콕	45	3.3	62	78	78	83
6	쿠알라룸푸르	44	3.3	55	68	47	62
7	홍콩	41	3.0	41	66	39	52
8	부산	37	2.7	23	6	6	10
9	제주	33	2.4	22	13	6	8
10	상하이	32	2.4	48	41	17	28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6 세계국제회의 개최현황, 2007.

- 2006년 아시아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를 주요 국가별 참가자 규모별 국제회의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101~500명 규모의 행사가 가장 큰 비중(54.6%)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501~1,000명 규모(15.8%)의 회의가 차지하였음.



<표 II-2> 아시아 주요 국가별 참가자 규모별 개최 현황(2006)

국가별 \ 규모(명)	100이하	101~500	501~1,000	1,001~3,000	3,000이상	계
싱가포르	53	183	41	20	11	308
한 국	23	93	37	21	9	183
일 본	7	35	10	13	6	71
중국·홍콩·마카오	3	11	7	5	3	29
인 도	3	8	1	-	-	12
아랍에미레이트	-	2	2	2	-	6
말레이시아	1	6	-	-	2	9
태 국	1	1	4	2	-	8
인도네시아	-	2	-	-	-	2
기 타	6	12	1	1	1	21
계	97	353	102	63	32	647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6 세계국제회의 개최현황, 2007.

주) 참가자 규모 미상 국제회의 제외.

#### 나. 주요 국가의 컨벤션산업 육성 현황

##### 1)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컨벤션과 전시, 박람회, 기업회의를 싱가포르 관광산업을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설정해 지식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싱가포르관광청(STB)은 2015년까지 약 1,7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300억 싱가포르달러(20조여 원)를 벌어들일 계획임. 300억 싱가포르달러 가운데 30%인 105억달러는 컨벤션산업에서 벌어들일 계획임.
- 싱가포르는 비티마이스(BTMICE)<sup>1)</sup>라고 하는 5개 핵심 컨벤션산업을 통해 관광객 총수입 중 35%에 달하는 40억 싱가포르달러(약 2조7000억원)를 벌어들이고 있음.
- 싱가포르의 컨벤션산업 주요 육성전략은 컨벤션산업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 통합적 추진, 국제기구 유치, 해외 컨벤션업체와의 글로벌 채널 구축,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 등임.

1) BTMICE란 비즈니스 여행(Business Travel), 기업 회의(Meeting), 포상 여행(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s)를 뜻한다. 싱가포르는 BTMICE를 하나의 컨벤션 산업군으로 분류해 관광산업을 이끌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표 II-3> 싱가포르의 컨벤션산업 주요 육성전략

구분	주요 내용
컨벤션산업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 통합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에서 비즈니스 이벤트를(BE in Singapore)’이라는 캠페인 프로그램 제작</li> <li>· 2006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2010년까지 싱가포르에 각종 비즈니스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5개년 마케팅 캠페인으로 관광개발기금으로 조성된 20억 싱가포르달러 중 1억700만달러를 투자</li> <li>· 자금 중 대부분은 기업회의나 포상 여행, 컨벤션, 전시 업무를 만들어내거나 행사를 유치한 기관이나 주최자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자금으로 활용</li> <li>· 외국의 이벤트 주관업체에도 자금을 지원</li> </ul>
국제기구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관광청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와 같은 국제기구의 아·태 지역본부 유치에도 적극적</li> <li>· 60여 개 기구를 유치해 이벤트 기회의 잠재력, 고용창출 효과, 경제적 파생 효과를 높임</li> </ul>
해외 컨벤션업체와의 글로벌 채널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바이, 밴쿠버, 에든버러, 케이프타운, 코펜하겐 등 대륙별로 주요 컨벤션뷰로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베스트 시티 글로벌 협력체 (Best Cities Global Alliance)’를 만들어 동반성장을 모색</li> </ul>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별 협회와 기업, BTMICE 관계자, 정부를 하나의 클러스터(Cluster)로 묶어 비즈니스 행사를 탄생시킬 하나의 생태계로 육성하고 있음.</li> <li>· 싱가포르에 진출한 7,000여개 다국적 기업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 행사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방법을 홍보</li> <li>· 싱가포르관광청은 협회와 산업별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컨퍼런스 대사’로 임명해 싱가포르 컨벤션산업을 유치하고 알리는 대변인 역할을 맡기고 있음.</li> <li>· 환경, 금융, 교통·물류, 디지털 등 분야별로 지난해 500명의 컨벤션 대사를 임명한 데 이어 올해는 1000명을 임명</li> </ul>
인센티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규모 이상 컨벤션 개최시 해외 마케팅 비용, 컨벤션 관리비용 중 30% 이상을 과감하게 지원</li> </ul>

자료 : 매일경제신문, 2008년 3월 4일.

## 2) 홍콩

- 아시아지역 전시·컨벤션산업의 선도주자인 홍콩은 무역진흥기관인 홍콩무역발전국(HK TDC)이 전시기획 및 주최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홍콩에서 개최되는 거의 모든 전시회의 주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홍콩의 컨벤션산업 육성 주요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리적으로 매우 전략적인 위치에 있고 홍콩이 가진 인프라스트럭처를 배후 시장인 중국 소비시장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임. 전시회나 국제회의 같

은 본 행사는 항공, 호텔, 교통 등 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홍콩에서 개최하고, 골프 투어는 값이 싼 중국 선전에서, 카지노는 마카오에서 해결함으로써 참석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음.

- 둘째, 쇼핑과 다양한 먹을거리, 엔터테인먼트 등이 낮에는 물론 밤에도 방문객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
  - 셋째, 전세계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항공의 국제적인 접근성도 홍콩의 큰 장점
  - 넷째, 홍콩에는 6,440개의 외국계 회사가 있고 이 가운데 3,890개 기업의 지역본부가 있어 기업체 회의가 열리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홍콩 관광청이 홍콩의 컨벤션산업 관련 파트너들과 함께 2006년에서 2015년 사이에 홍콩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컨벤션기획자들에게 제공하는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II-4> 홍콩 관광청 및 주요 기관의 컨벤션 유치 및 개최지원 서비스

구분	컨벤션지원 서비스
항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항공요금 : 이벤트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공요금</li> <li>• 신축성 : 요금, 예약, 티켓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단체의 인원수에 따라)</li> <li>• 라운지 제공 : First 및 Business Class 승객</li> <li>• Yum Sing : 홍콩에서 제일가는 65개 이상의 상점에서의 식사, 여흥, 쇼핑, 교통편에 대한 특별할인요금</li> </ul>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 1처에 한해 2개의 무료 객실 제공(여유가 있는 한도내에서 각 객실당 3박 이내)</li> <li>• VIP를 위한 객실 업 그레이트(여유가 있는 한도내에서)</li> <li>•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트 : 개별 호텔당 50개 이상의 객실을 사용하는 컨벤션에 한해 적용</li> </ul>
회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7월 사이 Asia World-Expo의 기본 임대료 30% 할인</li> <li>• 2006년과 2007년의 2월, 5월, 7월, 8월 혹은 12월에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컨퍼런스의 경우 HK Convention &amp; Exhibition Centre 임대료 30% 할인</li> <li>• 2008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2월, 5월, 6월, 7월, 8월, 12월에 개최되는 주요 컨퍼런스(2,500명 이상 참가자)에는 임대료 할인 제공</li> </ul>
Destination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 경합 단계에서의 무료 컨설팅</li> <li>• 관리비 35%까지 할인</li> </ul>
홍콩관광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KTB의 공식 출판물과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li> <li>• 홍보물 제공</li> <li>• 홍콩 국제공항에 환영 메시지 게시</li> <li>• 특별한 혜택이 담겨있는 쿠폰 북 제공</li> <li>• 개회식에 문화예술공연 제공</li> <li>• 500명 한도내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무료 선택관광 기회 제공</li> <li>• 1,000명 이상의 외국인 참가자가 있는 컨벤션에는 개최장소에 방문객 정보센터 설치, 무료 선택관광 참여자는 컨벤션 참가자의 수에 따라 결정</li> </ul>

자료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지역 컨벤션 관련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2006.

### 3) 주요 국가의 컨벤션센터 운영 현황

- 주요 국가의 컨벤션센터 소유주체와 운영주체를 보면, 소유주체는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 소유이며, 운영주체는 각 국가마다 상이하나 위탁운영 컨벤션센터가 많음.

<표 II-5> 주요 국가의 컨벤션센터 운영 현황

구 분	소유 주체	운영 주체	설립 자금조달	운영 자금조달
Las Vegas Convention Center (미국)	Clark County (라스베가스시)	Las Vegas Convention and Visitors Authority(LVCVA)	LVCVA의 채권 발행	Room & Gaming Tax가 수입의 약 80% Hotel Tax 9%를 LVCVA에서 직접 취득/운용
하와이 컨벤션센터 (하와이)	주 정부	SMG(컨설팅회사)에서 운영 *CVB는 마케팅담당	주정부	미확인 (공개여부를 꺼림)
오키나와 컨벤션센터 (일본)	오키나와 현	오키나와 CVB (위탁운영)	오키나와 현 조달	수익 2억엔, 관리비 4억엔 현 출자 자금으로 운영 2억엔 적자, 현에서 지급
만국진량관 (Bankoku Shinryokan) (일본)	오키나와 현	오키나와 CVB (위탁운영)	오키나와 현 조달	수익 6천만엔, 관리비 1억 6천엔, 현 출자자금으로 운영, 1억엔 차액은 현에서 조달
Pacifico Yokohama (일본)	(주)요코하마 국제평화 회의장 ※국립대회의장은 대장성 소유	(주)요코하마국제평화회의회장 ※요코하마시 위탁 → (주)요코하마 평화회의회장 재위탁(대회의장은 대장성으로부터 관리위탁 받음)	주주(요코하마시, 현 일본개발은행 등 262개 기업) 출자금과 은행융자 요코하마시 매립지 무상 임차	컨벤션홀의 요코하마시 보조금 국립대회의장 부분에 대한 정부보조금
동경국제포럼 (Tokyo International Forum) (일본)	동경시	재단법인 동경국제교류재단 2003년 7월 1일부로 (주)동경국제포럼 전환	도쿄시 전액투자	보조금 8.6억엔/년 (97년도) 주식회사 전환 후 동경시 51%, 민간 49% 자본소유 (자본금 4.9억엔)
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 (태국)	태국 재무부	QSNCC (재무부 문화재과 관리) ※시설, 경비, 청소는 NCC MC 회사에 위탁	재무부 전액 투자 (\$9천만)	약 27억원(년간) 정부 보조
Palais des Congress de Paris (프랑스)	파리상공회의소 80% 출자, 기타 개인기업 20% 출자	파리컨벤션센터 운영법인 위탁 운영	출자금 ※ 토지는 파리지 무상제공	
Hongkong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홍콩)	홍콩무역 발전국	NewWorld社 (Hongkong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Management, Ltd. 설립) ※40년간 위탁운영	New World社 건설비용 조달 * 토지 75년간 무상임대	New World사의 자회사는F&B 전문회사로 홍콩 내 연회수요 충분 (종업원 1,000명중 500명 이상 F&B 부문)
발리 컨벤션센터 (인도네시아)	Westin Starwood Hotel&Resorts	Westin Starwood Hotel&Resorts	사기업의 독자운영	사기업의 독자운영 (기업내부 자금 운용) 지자체와 관련 없음
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 (태국)	태국 재무부	QSNCC (재무부 문화재과 관리) ※시설, 경비, 청소는 NCC MC 회사에 위탁	재무부 전액 투자 (\$9천만)	약 27억원(년간) 정부 보조

자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부자료.

## 2. 국내 현황

### 가. 국제회의 개최 현황

- 2006년 시·도별 국제회의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191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82건, 제주도 79건, 대전광역시 18건, 대구광역시 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6> 시도별 국제회의 개최 현황

구 분	2006년			2005년			2004년		
	건수	구성비(%)	외국인	건수	구성비(%)	외국인	건수	구성비(%)	외국인
서울	191	45.48	41,764	155	50.65	41,052	164	54.30	21,193
부산	82	19.52	15,941	49	16.01	11,942	27	8.94	4,199
제주	79	18.81	9,629	42	13.73	8,470	41	13.58	8,884
대전	18	4.29	1,174	7	2.29	359	10	3.31	752
대구	15	3.57	2,315	11	3.59	2,068	13	4.30	2,110
경상북도	9	2.14	1,119	9	2.94	1,127	10	3.31	992
경기	5	1.19	4,115	20	6.54	2,250	15	4.97	1,715
기타	17	5.00	3,120	29	9.48	4,159	42	13.91	3,132
합계	420	100.00	79,177	306	100.00	69,941	302	100.00	41,233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6 국제회의 개최현황, 2007.

- 2006년 국내 국제회의 규모별 동향을 살펴보면, 100~300명 미만 규모의 행사가 가장 큰 비중(34.29%)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300~500명 미만 규모(18.1%)의 회의가 차지하였음.

<표 II-7> 국내 국제회의 규모별 동향

구분	50명미만		50~1백명미만		1백명~3백명미만		3백명~5백명미만		5백명~1천명미만		1천명이상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2004년	40	13.25	38	12.58	95	31.46	57	18.87	37	12.25	35	11.59
2005년	21	6.86	32	10.46	71	23.20	78	25.49	54	17.65	50	16.34
2006년	28	6.67	46	10.95	144	34.29	76	18.10	66	15.71	60	14.29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6 국제회의 개최현황, 2007.

- 2006년 장소별 국제회의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420건 중 197건이 호텔에서 개최되어 전체 대비 46.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컨벤션센터가 121건 개최로 28.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8> 장소별 국제회의 개최 현황

주요 장소	건수	구성비 (%)	주요 장소	건수	구성비 (%)
코엑스	42	10.00	제주신라호텔	11	2.62
벅스코	32	7.62	김대중컨벤션센터	9	2.14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4	5.71	엑스코	9	2.14
롯데호텔서울	15	3.57	그랜드힐튼서울	8	1.90
파라다이스호텔부산	15	3.57	서울신라호텔	8	1.90
쉐라톤그랜드워커히호텔	14	3.33	샤인빌릭서리리조트	7	1.67
라마다프라자제주	11	2.62	서울대학교	7	1.67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6 국제회의 개최현황, 2007.

나. 국내 컨벤션센터 시설 현황

- 2000년 ASEM회의를 대비하여 증축한 서울 삼성동 COEX의 건립 이후 부산 (BEXCO), 대구(EXCO) 등의 지역은 물론, 제주(ICC Jeju), 경기도 고양(KINTEX), 광주, 창원 등에도 컨벤션센터가 들어섰고, 현재 인천, 대전 등에서 센터를 건립하거나 일부 증축 계획 중에 있음.
- 국내 컨벤션센터 중 코엑스와 벅스코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평균 가동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음.

<표 II-9> 국내 컨벤션센터 시설 현황

구분	ICC JEJU (제 주)	COEX (서 울)	BEXCO (부 산)	EXCO (대 구)	KINTEX (고 양)	김대중컨벤션 (광 주)	CECO (창 원)
시설 규모	전시설 면 적	2,586㎡ 1개	36,027㎡ 4개	41,548㎡ 전문전시: 4개 중소전시: 15개	11,617㎡ 실내전시: 2개 실외전시: 1개	53,540㎡ 6개홀	10,800㎡ 1개홀
	회의실 면 적	6,926㎡ 25개	10,358㎡ 54개	4,961㎡ 23개	5,930㎡ 12개	7,791㎡ 그랜드볼룸, 23개회의실	2,300㎡ 컨벤션홀, 10개회의실
	대회의실	4,300명 (극장식)	6,500명 (극장식)	2,800명 (극장식)	3,500명 (교실식)	2,000명 (교실식)	1,200명 (교실식)
기 타	전문 국제회의장	전시장 위주	전시장 위주	전시장 위주	전시장 위주	전시장 위주	전시장 위주

자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부자료.

다. 컨벤션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 2006년 발표한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은 2010년 컨벤션산업 세계 12위권에 진입 (UIA 기준 220건 개최, 외화 획득 2.5억달러, GDP 비중 0.04% 달성)하여 동북아시아 컨벤션 리더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한 전략으로 컨벤션산업 기반 확대,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CVB), 국제회의기획전문업체(PCO)의 내실화 및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조직 및 제도적 지원 확대를 통한 국제회의 유치경쟁력 강화,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음.

<표 II-10>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 세부 추진과제

부 문	20대 추진과제
국제회의 전담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CVB의 지역마케팅기구(DMO)로의 기능 확대</li> <li>· 지역CVB의 전시회뷰로 기능 도입</li> <li>· 국제회의 중앙전담조직의 확대 개편</li> </ul>
국제회의기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국제회의기획업 인증제 도입</li> <li>· 전문 국제회의기획업의 중점 육성</li> <li>· 서비스메뉴얼 및 평가척도 개발</li> </ul>
국제회의 전문회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공급의 조정기능 강화</li> <li>· 시설의 다용도 이용 활성화</li> </ul>
국제회의 유치·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회의의 요건 완화 및 지원범위 확대</li> <li>· 유망 국제회의 선정 및 유치활동 지원</li> <li>· 민관 공동유치 국제회의 지정</li> <li>· 국제회의 개최 준비자금 대여제 도입</li> <li>· 전시회의 관광상품화 지원</li> <li>· 국제회의 정보시스템 구축</li> </ul>
국제회의 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 확대</li> <li>· 컨벤션기획사 자격증 제도 보완</li> </ul>
국제회의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국제회의 유치 캠페인 전개</li> <li>· 국제회의도시 운영 평가</li> </ul>
법·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li> <li>· 기부금 세제혜택 및 부담금 감면</li> </ul>

자료 : 문화관광부,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 2006.

### Ⅲ. 제주지역 컨벤션산업 현황 분석

#### 1. 제주지역 컨벤션산업 육성현황 분석

##### 가. 지원제도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169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제173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에 지원이 가능함.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2008. 3. 5 제정, 조례 제 339호) 제정.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나. 국제회의시설 현황

- 도내 특급호텔들은 객실 및 식음료 활성화 방안으로 회의 및 연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회의시설이 확장되고 있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경영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많은 국내·외 행사 유치 및 이벤트 개최에 노력하고 있음.

##### 다. 장소별 국제회의 개최 현황

- 2007년 장소별 국내·외 회의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도에서 개최된 국내·외 회의 2,140건 중 1,375건이 호텔에서 개최되어 전체 대비 6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컨벤션센터가 194건 개최로 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I-1> 제주지역 국제회의시설 현황

구 분	연 회 장		동시통역 가능시설수
	면 적(m <sup>2</sup> )	수용가능인원(명)	
제주그랜드 (특1, 512실)	(대) 486 (중) 399(2) (소) 66	600 280 30	5개 국어
호텔신라제주 (특1, 429실)	(대) 724(2) (중) 242(2) (소) 185(2)	900 180 85	6개 국어
라마다프라자 (특1, 380실)	(대) 966.9 (소) 82.5(4)	1,200 60	5개 국어
하얏트리젠시제주 (특1, 224실)	(중) 154 (소) 76(3)	400	5개 국어
제주오리엔탈 (특1, 313실)	(대) 1,1136(2) (중) 112 (소) 46	1,060 100 30	통역시설 임대시 5개 국어 가능
제주KAL호텔 (특1, 282)	(대) 608 (중) 337(3) (소) 232(7)	800 245 177	5개 국어
크라운프라자 (특1, 234)	(대) 370 (중) 213 (소) 35	400 200 20	통역시설 임대시 5개 국어 가능
롯데호텔 (특1, 500)	(대) 1,020 (중) 737(4)	800 440	7개 국어
호텔그린빌라 (특1, 90)	231.7	150	통역시설 임대시 5개 국어 가능
서귀포시 KAL호텔 (특2, 225)	(대) 435 (중) 365.8 (2) (소) 151.3(3)	300 280 80	통역시설 임대시 5개 국어 가능
제주퍼시픽 (특2, 177실)	200	150	통역시설 임대시 5개 국어 가능
중소기업지원센터	(대) 496.5 (중) 270 (소) 78	300 730 22	4개 국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 4,597 (대) 812 (중) 398 (소) 113 이벤트홀 2,504	4,300 660 300 100 2,450	8개 국어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07년도 주요 관광행정 현황, 2007.

<표 III-2> 장소별 국내·외 회의개최 실적 현황

구분	2007년			2006년			2005년		
	건수	전체 참가자	외국인	건수	전체 참가자	외국인	건수	전체 참가자	외국인
계	2,140	308,142	25,737	1,732	362,835	-	1,412	380,640	17,128
ICC JEJU	194	103,805	10,866	234	200,169	19,214	268	228,012	10,132
특급호텔	1,375	139,805	11,319	936	96,371	-	1,062	147,407	6,443
리조트	435	46,737	1,764	539	63,795	-	82	5,221	553
제주대학교	132	13,108	697	23	2,500	-	-	-	-
기타	4	5,119	1,091	-	-	-	-	-	-
파급효과	직접파급효과 : 2,007억원 총파급효과 : 4,577억원			(외국인 미 파악)			직접파급효과 : 2,250억원 총파급효과 : 5,132억원		

자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부자료.

라. 제주컨벤션뷰로 현황

- 제주도에 국제회의, 박람회, 이벤트 등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하여 기획으로부터 마케팅은 물론 성공적 행사개최 및 관광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주도 컨벤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3월에 설립 되었음.
- 제주컨벤션뷰로의 주요 서비스는 국제회의 유치 지원과 국제회의 개최지원 활동 등임.
-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사무국장은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담당하며, 기획총무팀(1인), 마케팅팀(제주 3명, 서울사무소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한 실정임.

마. 국제회의기획업 등 관련업체 현황

- 제주도에 컨벤션관련 시설, 장비 및 인력 업체들은 대도시 업체들에 비하여 영세하고, 대형 국제행사에 대한 운영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도 거의 없는 상황임.
- 제주도에 컨벤션관련 협력 업체간 또는 서울 업체와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등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아 타 업체들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행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음.

<표 III-3> 제주지역 국제회의기획업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등 록 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허정옥	서귀포시 중문동 2700	'02.06.28
(주)몽치이벤트투어	김영훈	제주시 이도2동 1148-2	'02.07.05
(주)엠앤씨제주	김영민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 2535 제주관광대학 창업보육센터 311호	'03.05.26
(주)프라임커뮤니케이션	권영진	제주시 노형동 743-1	'05.02.22
(주)누리커뮤니케이션	유영신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535 제주관광대학 창업보육센터 603호	'06.04.24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07년도 주요 관광행정 현황, 2007.

바. 컨벤션 인력 양성 및 지원

- 대형 국제회의시 행사 운영 지원인력이 제주도내는 부족함에 따라 타 지역에서 운영인력을 지원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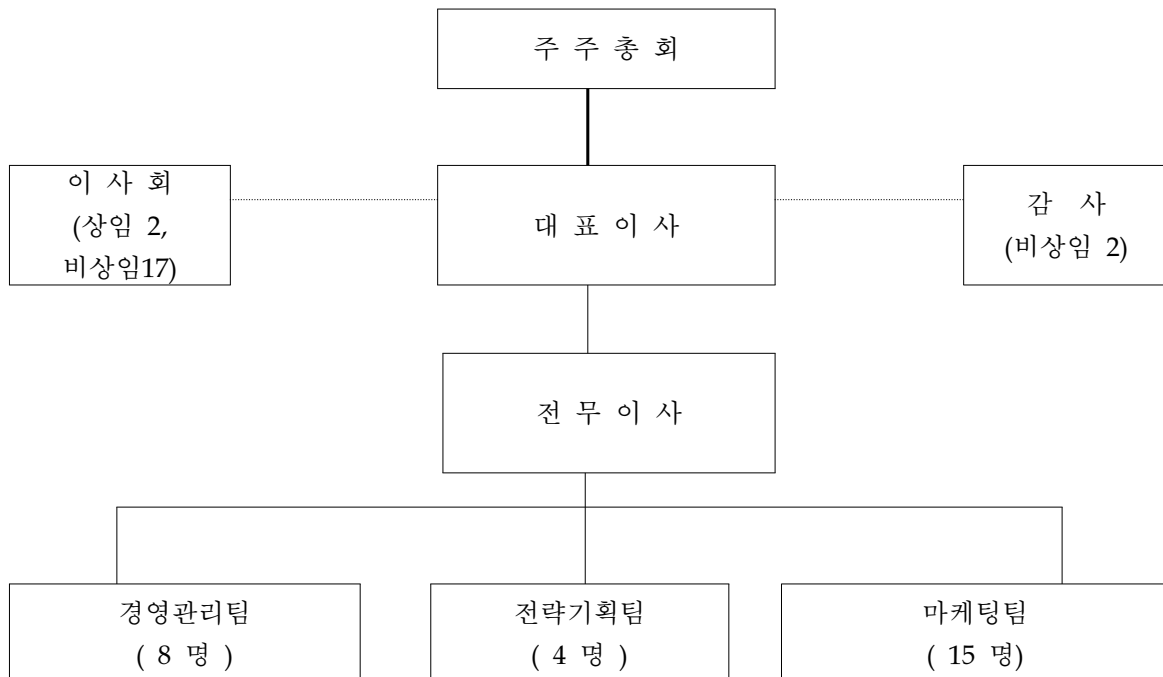
- 국제회의인 경우 영어 가능 인력이 많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제주지역내 인력은 부족한 상황임.
- 동시 통역인력, 특수 언어(스페인어, 불어, 아랍어 등) 통역 인력 없거나 부족함.
- 이는 국제회의 주최자나 기획사에게 비용 증가로 제주 컨벤션 유치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2.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현황

### 가. 조직 및 주주현황

- 2008년 1월 현재 조직구성은 임원 2명, 직원 27명으로 총 29명(정원 32명)이며, 이사회는 상임 2명, 비상임 17명으로 총 19명, 감사는 비상임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설위탁관리 협력업체는 (주)교보리얼코과 (주)그린웰이며, 총 61명임. 식음위탁관리 협력업체는 트레블러스호텔(서울관광)로 총 33명임.

[그림 III-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조직도



- 또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주식 지분율을 기관별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57.02%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이며, 한국관광공사가 17.42%, 기업 등이 나머지 25.56%를 갖고 있음.

<표 III-4>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주현황

구 분	인 원	주식수 (천주)	금 액 (백만원)	지분율 (%)	비 고	
총 계	4,125	33,320	166,601	100.00		
제주특별자치도	1	19,000	95,000	57.02	종전 4개시군분 포함	
한국관광공사	1	5,805	29,026	17.42	토지(센터, 호텔) 출자 32,740평	
민 간 주	4,123	8,515	42,575	25.56		
개 인 주	소 계	4,043	2,659	13,295	7.98	
	재일교포	204	1,263	6,317	3.79	재미교포 2명 4백만원 포함
	도내외도민	3,839	1,396	6,978	4.19	
법 인 주	소 계	80	5,856	29,280	17.58	
	컨벤션센터관련	9	2,473	12,363	7.42	센터건립참여업체
	관광업 등 관련	47	2,427	12,137	7.29	관광업, 건설업 등
	기 타	24	956	4,780	2.87	기관, 단체 등

자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JEJU 운영활성화 계획, 2008.2.

나. 회의실 및 지원·편의시설 현황

- 회의실은 4,300석 규모 컨퍼런스홀 등 회의실 최대 32실, 전시실 겸 회의실(5분할) 등이 있음.
- 지원·편의시설은 비즈니스센터, 식음시설, 상업시설, 썬큰가든, 우체국, 렌트카, 꽃집, 편의점 등이 있음.

<표 III-5>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시설 현황

구 분	면적(m <sup>2</sup> )	규 모 (교실식)	용 도
컨퍼런스홀(탐라홀)	4,668	4,300석(2분할)	- 총회, 전시, 연회, 이벤트 - 강연회, 음악회, 스포츠
대회의실(한라홀)	867	920석(2분할)	- 회의, 강연회, 이벤트 - 연주회, 영화 상영
중회의실(삼다홀)	411	400석(2분할)	- 회의, 강연회, 세미나
소회의실	1,714	70~240석	- 회의, 교육, 강연 - 최대 분할시 18실
전시실 겸 회의실	2,586	220~620석(5분할)	- 회의실, 전시, 박람회, 이벤트
정보센터	150		- 관광·전시 정보센터
상업 지원 시설	커피숍(3층)	998	- 판매, 위탁, 식음료 - 공공시설, 지원시설 - 사무실, 다목적실
	레스토랑(1층)	1,041	
	레스토랑(2층)	439	
	카페테리아(B1)	1,869	
	로비(B2)	2,562	
	지원시설	591	
주차장	9,434		
썬큰가든	4,905		- 야외 연회, 이벤트

자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JEJU 운영활성화 계획, 2008.2.

#### 다. 컨벤션 및 전시개최 현황

- 2003년 개관 이후 행사건수는 2003년에 82건(국제회의 10건), 2004년에 114건(국제회의 17건), 2005년에 268건(국제회의 10건), 2006년에 234건(국제회의 18건), 2007년에 194건(국제회의 19건) 등 ICC JEJU의 개관 이후 총 행사개최 건수는 892건(국제회의 74건)에 달함.
- 2007년에는 ASTA, 제58차 WHO 서태평양지역회의, UCLG제주세계총회, 제6회 아태금속재료학회총회 등 대형 국제회의를 비롯하여 19건의 국제회의, 51건의 국내회의, 18건의 전시 및 공연 등 총 194건의 각종 행사를 개최했음.
- 각종 행사에 참여한 3만9,297명의 도외 내국인, 1만866명의 외국인이 지출한 규모는 676억원이고, 지역경제파급효과는 1,5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표 III-6> ICC JEJU 연도별 행사 개최 실적 현황

구분	행사건수 (국제회의)	행사 매출액	직접 생산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고
'03년	82건 (10건)	835백만	358억원	817억원	94,884명 (도외 32,568, 외국인 3,341)
'04년	114건 (17건)	1,890백만	690억원	1,575억원	198,178명 (도외 48,083, 외국인 9,467)
'05년	268건 (10건)	1,553백만	957억원	2,183억원	228,012명 (도외 81,074, 외국인 10,132)
'06년	234건 (18건)	2,013백만	1,137억원	2,594억원	200,169명 (도외 61,371, 외국인 19,214)
'07년	194건 (19건)	2,000백만	676억원	1,543억원	103,805명 (도외 39,297, 외국인 10,866)
합 계	892건 (74건)	8,291백만	3,818억원	8,712억원	825,048명 (도외 262,393, 외국인 53,020)

자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JEJU 운영활성화 계획, 2008.2.

라. 경영실적 현황

- 매출액은 2003년 9.7억원에서 2004년 23여억원, 2005년 25여억원, 2006년 30여억원, 2007년 35여억원으로 개관 시에 비하여 많이 증가하였음.
- 2007년도의 사업수지는 감가상각비 33억9백만원을 포함한 약 48억원의 손실을, 2003년 개관 후 2007년까지 사업수지는 감가상각비 포함 약 280억원(감가상각비 제외 약 117억원)의 손실을 보면서 센터운영 적자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표 III-7> ICC JEJU 경영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3년 실적	'04년 실적	'05년 실적	'06년 실적	'07년 실적	비고
매출액	972	2,315	2,549	3,005	3,518	매출증대, PCO사업 등
관관비(매출원가포함)	7,833	8,539	8,533	8,890	8,801	'07년 시설관리비 27억 행사비 및 운영비 25억 감가상각비 33억
영업 손실	(6,860)	(6,223)	(5,984)	(5,885)	(5,283)	
영업외 수익	545	1,927	659	5,210	5,302	이자수익, 보조금 수입
영업외 비용	800	2,404	1,202	2,204	4,875	이자비용, 기타 손실
당기 순손실	(7,115)	(6,701)	(6,527)	(2,879)	(4,856)	감가상각비 포함
경상 수지	(3,848)	(2,716)	(2,419)	(1,253)	(1,547)	감가상각비 제외

자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JEJU 운영활성화 계획, 2008.2.  
주) \* '06년 호텔부지 매각수익 3,686백만원, '07년 제주도 관리비 보조금 900백만원 포함

### 3. 제주지역 컨벤션산업의 SWOT 분석

- 향후 제주지역 컨벤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광 컨벤션 목적지로의 리브랜딩 (Re-branding) 작업이 필요하고, 지자체, 업체, ICC JEJU, 협회 등이 협력하여 공동 마케팅·인력양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외국 주요 도시와의 지속적인 항공노선 확충, 차별화된 컨벤션 인센티브 정책 마련, 컨벤션방문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 등이 필요함.

<표 III-8> 제주지역 컨벤션산업의 SWOT분석 행렬

내부환경  외부환경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고도의 자치권 획득</li> <li>- 숙박시설, 컨벤션시설 등 우수한 컨벤션 기반시설 확보</li> <li>- 제주도 전역 국제회의 도시 지정</li> <li>- 국제자유도시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항공노선 미약</li> <li>- 컨벤션 전문인력 부족</li> <li>- 컨벤션 협력업체 영세성</li> <li>- 가격면에서 국제 경쟁력 약화</li> <li>- 쇼핑, 엔터테인먼트 요소 부족</li> </ul>
기 회(Opportunity)	S-O 전략(활용)	W-O 전략(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의 컨벤션산업 육성 의지</li> <li>- 리조트형 컨벤션 수요증대와 아시아권 시장 급성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벤션과 관광 등 타 산업과의 연계 강화</li> <li>- 지자체, 업체, ICC JEJU, 협회 등이 공동 마케팅 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벤션 전문인력과 업체 육성을 위한 산·학·민·관 협력체계 구축</li> <li>- 관광수용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li> </ul>
위 험(Threat)	S-T 전략(맞섬)	W-T 전략(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 국가간 컨벤션산업 육성 경쟁 심화</li> <li>- 해외리조트형 관광지간 경쟁심화</li> <li>- 국내 컨벤션센터 지속적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조트형 컨벤션 목적지로서의 이미지 강화</li> <li>-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분야의 전문 전시회 개발</li> <li>-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주요 도시와의 지속적인 항공노선 확충</li> <li>- 행사를 유치한 기관이나 주최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li> <li>-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비중 확대 등 컨벤션산업 경쟁력 강화</li> </ul>

## IV. 제주지역 컨벤션산업 과제와 활성화방안

### 1. 제주지역 컨벤션산업 활성화 방안

#### 가. 컨벤션의 브랜드화 작업 필요

- 관광지로서의 단일 브랜드 이미지를 벗고 관광컨벤션 목적지로서의 리브랜딩(Re-branding) 작업이 요구됨.
- 이제 “제주는 관광지이다”라는 단일 브랜드를 넘어 “컨벤션이 함께하는 관광지”로서 리브랜딩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스위스 무명도시 다보스는 ‘다보스포럼’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프랑스 칸은 ‘국제영화제’로 국제적인 축제·휴양도시로 변모했음. 또 일본 교토는 교토의정서(지구온난화방지협약)가 채택된 이후 세계적인 국제회의 명소로 떠올랐음.
- 제주도도 ‘기억날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 대외 인지도를 높여야 함. ‘제주평화포럼’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지도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함.
- 또한 섬지역의 특성상 전시회나 박람회 개최를 활성화하기 어려우나, 향후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분야의 전문 전시회를 개발하는 방안도 필요함.

#### 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례분석에 의하면, 싱가포르관광청이 구축한 컨벤션뷰로 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도 컨벤션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코리아컨벤션뷰로), 무역협회(KOTRA), 그리고 국제회의 관련 협회, 국제기구, 국제 학술단체, 각종 국제 협회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함.

#### 다. 컨벤션 전담조직에 eDMS 도입

- eDMS(electronic Destination Management System)는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협력적 네트워크 시스템으로서, 컨벤션산업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고 고



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원의 창출이나 기존 자원의 결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내 대부분의 컨벤션뷰로(CVB) 웹 사이트에서는 회원사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거나 실시간 온라인 결제와 같은 서비스는 아직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정보제공 중심의 웹사이트에서 컨벤션 포털과 같은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 e-business 시스템으로의 발전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운영되고 있는 DMS는 사용이 불편한 CVB 위주의 서비스 제공, 정보기술 투자에 대한 인식부족, 예산확보의 문제, 담당인력의 양적·질적 부족,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 컨벤션 목적지 구성기업들과의 협력 부족 등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
- 김길래·김충영(1997)이 국내 컨벤션뷰로에 근무하는 실무진들에 대한 인터뷰조사에 의하면, eDMS 구축이 절실하지만 eDMS의 도입은 시스템 통합의 어려움, 컨벤션 관련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 그리고 CEO와 구성 기업들의 필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난관을 겪고 있다고 함.
- 따라서 eDMS의 도입 및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CEO의 혁신성, 정보기술 전담인력 확보, 구성기업들간의 적극적 협력, 시스템 통합,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향후 eDMS가 구축된다면 고객 서비스 증진, 내부프로세스 효율성 향상, 공급자와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정보교환의 신속성과 정확성 증가, 공급자와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라. 관광과 컨벤션 조직의 통합

- 제주는 리조트 관광지이므로 제주에서 컨벤션을 주최하는 컨벤션 주관사는 반드시 관광을 프로그램에 포함하기 때문에 관광과 컨벤션을 분리하여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임.
- 따라서 관광과 컨벤션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조직 개편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현재 설립 추진 중인 '제주관광공사'와 제주컨벤션뷰로를 통합하고, 제주관광공사에서 관광 및 컨벤션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함.

마. 전문인력 양성

- 국제회의 운영에 요구되어지는 인력을 크게 전문인력과 운영지원인력으로 구분하여 이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산·학연계 '컨벤션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함.
- 향후 설립될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관광협회, 대학, 호텔, PCO업체 등이 이 사업을 공동으로 주관하여,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을 실시함.
- 컨벤션에 소요되는 전문 인력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컨벤션 주최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 인원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인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함.

바. 관광수용태세 개선

- 미국 라스베가스, 홍콩 등의 컨벤션산업의 장점은 컨벤션 참가자들을 위한 쇼핑과 다양한 먹을거리, 엔터테인먼트 등이 낮에는 물론 밤에도 제공되고 있다는 것임.
- 컨벤션 목적지로 제주의 강점은 회의참가와 더불어 이국적인 공간에서 관광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임.
- 한국관광공사에서 2007년도 국제회의 참가를 위해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제회의 운영 수준, 회의 참가자 만족도 등에서 제주도가 국내 최고의 것으로 조사됨. 반면에 제주방문시 겪었던 어려움이나 불편했던 점에 대해 '언어소통'이 73.6%로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았고, 고물가가 36.2%, 표지판의 난해함이 21.8%, 음식의 맛 14.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숙박, 교통, 음식, 안내, 쇼핑 등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기준을 적용하여 수용태세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외국인을 주로 상대하는 모든 서비스업체에 단계적 관광품질인증제도를 확대·시행해야 함. 향후 관광품질인증제를 담당할 관광품질인증센터 설립도 필요함.
- 또한 컨벤션 참가자들이 제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예를 들어, 국제회의에 참가자들이 주변의 관광지·관광시설들을 주·야간에도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지 할인혜택 부여, 교통편(관광지, 컨벤션센터↔숙소) 마련, 새로운 볼거리·즐길거리 조성(음식테마거리, 분수쇼, 야간경관 조성) 등이 필요함.

사. 지역 컨벤션업체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제주관광을 컨벤션산업으로의 체질 전환을 위한 인큐베이터로서의 기능을 제주관광공사가 수행해야 할 것임. 제주 컨벤션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선결 조건은 컨벤션시설 뿐만 아니라 컨벤션을 지원하는 협력업체들도 국제 수준이 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컨벤션을 구성하는 기획, 이벤트, 공연, 장비임대, 여행, 테마파티, 레크리에이션, 장식, 쇼핑, 통역 서비스 등에 대한 지역 업체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점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중장기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컨벤션 수요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 대형업체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축적된 제주관광의 지식, 경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치된 대형 컨벤션에 대해서는 지원적 자세를 취하고, 인센티브, 세미나와 같은 작은 행사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지역 기반형 컨벤션기획업을 육성해 나가야 함.

아.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명확화 및 인센티브 강화

- 싱가포르의 경우 2010년까지 싱가포르에 각종 비즈니스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관광개발기금 20억 싱가포르달러 중 1억 700만달러를 컨벤션산업 육성에 투자하기로 하였음.
- 자금 중 대부분은 기업회의나 포상 여행, 컨벤션, 전시 업무를 만들어내거나 행사를 유치한 기관이나 주최자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거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설치되었고,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사업에 지원이 가능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2008.3.5 제정, 조례 제399호) 제7조(재정지원)에는 첫째, 제주국제컨벤션센터·국제회의 전담기구와 제주특별자치도간 위탁 계약하여 수행하는 사업, 둘째, 국제회의시설업으로 등록된 국제회의시설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만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 관련 조례에도 '행사를 유치한 기관이나 주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향후 주요 주최자를 대상으로 Fam Tour 실시 및 홍보자료 발송 등으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연속적 개최를 위해 개최 실적 등에 따라 비용 할인, 지원서비스 확대 등 혜택을 부여함.

## 2.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 가. 조직 운영 방안

- (제1안) ICC의 독자공기업 전환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관광관련 조직 운영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도민주 및 기업주 반환대책 마련문제가 여전히 상존함.
- (제2안) ICC와 제주관광공사의 통합 발족인 경우, 설립예정인 제주관광공사의 경영 효율성 약화 가능성이 있고, 도민주 및 기업주 반환대책 마련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게 됨.
- (제3안) 주식회사를 유지하면서 JDC와 전략적 제휴를 하거나 공기업으로 전환하더라도 JDC에 경영을 위탁하는 경우, JDC가 도민주와 기업주를 인수할 자금조달의 문제 해결과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던 경영적자를 JDC가 해소해 나갈 수 있는지가 관건임.
  - 다만, 컨벤션센터내에 내국인면세점 설치, JDC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전략프로젝트 사업과 연계, JDC의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등을 잘 활용한다면 경영적자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제3안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음.
- (제4안) 현행대로 주식회사를 유지할 경우, 수익사업 추진이 어렵고, 도민주 및 기업주 반환대책 마련문제가 여전히 상존함.

<표 IV-1> 공기업 전환 및 기타 조직형태별 주요 내용 및 과제

방 안	주 요 내 용	과 제
(제1안) 공기업화 ICC의 독자공기업 전환	· ICC 독자적 '제주국제컨벤션공사'로 발족 · 센터 본연의 기능 제고 및 컨벤션사업 특화	· 독자적인 수익사업 확보 어려움 · 제주도 차원의 관광관련 조직 운영비용 과다 발생 · 도민주 반환대책 필요
(제2안) 공기업화 "ICC + 제주관광공사" 통합 발족	· 출범예정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관광·컨벤션공사로 통합 · 제주관광산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 및 통합관광 조직의 컨벤션 기능 강화 (독립적인 컨벤션본부 운영)	· 제주관광공사의 경영 효율성 약화 가능성 · 도민주 반환대책 필요
(제3안) 주식회사 유지 JDC와 전략적 제휴	· JDC의 ICC 도민주(425억) 인수 및 운영지원 (위탁운영) · JDC가 센터내 특화된 내국인면세점을 설치하고, ICC는 임대료 수입을 통한 운영비 조달 (품목 및 면세완화 지원 필요)	· JDC의 자금조달 어려움
(제4안) 주식회사 유지 현행대로 유지	· 주식회사 형태 유지 및 설립 당시 계획된 수익사업 추진 · ICC는 민간부문 장점(유연성, 효율성) 확보 및 컨벤션사업 특화	· 향후 수익사업 추진의 어려움 · 도민주 반환대책 필요

자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공기업 전환 검토용역 진행결과, 2008. 3.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 2006. 참고로 작성.

#### 나. 공동 브랜드 형성 및 마케팅방안 마련

- 프랑스는 최근 파리 시내 컨벤션센터들을 하나의 운영체제로 통합하는 인수·합병(M&A)을 끝마쳤음. 파리엑스포는 인수·합병된 컨벤션센터를 묶어 'VIParis(Venues In Paris)'라는 단일 브랜드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파리 시내 컨벤션센터끼리 불필요한 경쟁을 막고 파리의 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여건상 특히 500명 이상의 대규모 회의는 단기적으로 볼 때 중문관광단지 내 호텔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마케팅을 강화하고 부족한 중·소규모 회의시설, 연회장, 전문 서비스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기적으로도 제주컨벤션 브랜드 형성차원에서도 도내 호텔들과의 공동 마케팅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함. 앵커호텔 개관('09. 8월) 이후에도 중문관광단지 내 호텔들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함.

#### 다. 수익사업 발굴

- 공기업으로의 전환이나, 현 주식회사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영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익사업 발굴이 반드시 필요함.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협력하여 컨벤션센터 내 명품 위주의 내국인 면세점 설치가 필요함. 면세품목 확대방안과 연계하여 골프 관련 등 스포츠용품, 명품의류, 보석류 등 고가 위주의 상품 차별화를 실시하여 공항면세점과 상품차별화를 도모함.

#### 라. 제주특별자치도, 컨벤션센터 상해 홍보사무소 통합 운영

- 2006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 제주홍보사무소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제주관광홍보사무소가 제각각 운영되면서 업무중복 문제가 파생되고 있음.
- 중화권 컨벤션시장 공략을 위해 컨벤션센터에서 상해사무소를 개소((08. 1월)하였으나,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성 차원에서도 사무소를 통합·운영하고 전문인력만 파견하는 방안을 모색함.

## V. 결 론

- 국내·외 컨벤션시장 역시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컨벤션산업 육성책이 요구되고 있음.
-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홍콩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컨벤션산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지자체들도 컨벤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지역과 제주지역 컨벤션 산업 육성 현황을 토대로, 제주지역 컨벤션산업의 과제와 육성방안을 고찰하였음.
- 컨벤션산업 육성 관련 2차 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와 자료분석에 의존하여 제주지역 컨벤션산업 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음.
- 컨벤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국제회의산업 기반 강화, 컨벤션 유치, 홍보 강화, 리조트형 컨벤션 매력 증대, 국내외 교류 및 협의 증대, 민간 참여 및 시장경쟁 요소 도입 확대를 통한 활성화 방안이 요구됨.
- 국제회의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서 컨벤션부로의 역할 정립 및 연계역할 강화, 국제회의기획업 성장 지원, 교육, 인력양성 강화, 컨벤션 시설 및 기관의 재정지원 및 수입기반 확대가 필요함.
- 외부와의 연계 및 홍보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수요 확대의 지속적 추진, 기업회의와 인센티브투어 시장 유치 확대, 인터넷을 통한 제주컨벤션 정보제공 강화, 각종 할인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치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함.
- 리조트형 컨벤션의 매력 증대를 위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과 연계한 거시적 컨벤션 환경 조성, 제주ICC 내의 내국인 면세점 유치 등을 통한 쇼핑 매력을 높여 나가야 함.
- 향후 제주지역 컨벤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통 접근성, 음식점 등 다양한 부대시설, 컨벤션 전문인력 등 소프트웨어가 갖춰져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다양한 매체활용을 통한 국내·외 홍보 업무를 보강하고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의 동반 개최 경향에 따른 지역산업 중심의 다양한 국제회의, 전시회 유치 및 개최활동 강화하여 관광부문에서의 국제적인 인지도 향상 및 타 해외관광도시와는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감.

-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참가자가 실제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국제회의 개최를 관광활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함. 장기 비전으로 유비쿼터스 U-Convention 구축, 엔터테인먼트적인 이벤트 개발 및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컨벤션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별화된 컨벤션산업 육성정책 마련과 지자체, 관광사업체, 관광협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학교 등의 실질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컨벤션산업이 궁극적으로 제주도에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과 홍보활동이 필요함. 국제회의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도청 및 도민의 전반적인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제주컨벤션뷰로 및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실질적인 운영주체에 대한 제주도의 전폭적인 지원 필요함.



## 참고문헌

- 김길래·김충영, “국내 컨벤션 전담조직의 eDMS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협력적 네트워크 시스템(컨벤션 포탈)의 수용 관점에서,” 관광학연구 31(6), 2007.
- 김길래, 「협력적 네트워크 시스템의 수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내 컨벤션 목적지 전담조직의 eDMS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매일경제신문, 2008년 2/12, 2/19, 3/4일자.
- 문화관광부,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 2006.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지역 컨벤션 관련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2006.
- 유영신, “제주 컨벤션산업 발전을 위한 소고”, 제주발전포럼(통권 19호), 2006.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JEJU 운영활성화 계획, 2008.2.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JEJU 부대사업 추진계획, 2008.2.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주요업무보고자료, 2008.2.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공기업 전환 검토용역 진행결과, 2008.3.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2005.
- 제주특별자치도, 2007년도 주요 관광행정 현황, 200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관광 진흥계획, 2007.
- 한국관광공사, 2006 국제회의 개최현황, 2007.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 2006.
- 한라일보, 2008년 4월 1일자.
-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 2007.
- 황희곤, “컨벤션산업의 육성정책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정책 제30호, 2008.2.

